

“뭐라고?”

비르지니가 말했네.

“그렇게 크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랑? 내가 오빠를 너무 위험하게 했어! 맙소사!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! 세상에 하기 쉬운 건 나쁜 짓밖에 없다니까.”

강 건너 기슭에 다 와서도 계속해서 동생을 업고 길을 가고 싶었던 폴은, 그대로 거기서 앞쪽으로 반 리외 정도 떨어진 곳에 보이는 삼유방산을 오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, 곧 힘이 빠져 비르지니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서 쉴 수밖에 없었네. 그러자 비르지니가 폴에게 말했다.

“오빠, 날이 저물고 있어. 오빠는 아직 힘이 남아 있지만, 나는 이제 힘이 부쳐. 날 여기 남겨두고 혼자서라도 오두막으로 돌아가 우리 엄마들부터 안심시켜줘.”

“아니, 안 돼!”

폴이 말했네.

“나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. 우리가 있는 이 숲속으로 밤이 찾아들면 불을 붙일게. 야자나무도 쓰러뜨릴 거야. 너는 거기서 떨어진 야자 순을 먹으면 되고, 나는 네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옆으로 초막을 지을 거야.”

비르지니는 이렇게 잠시 쉬는 와중에도, 강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고목 줄기에서 거기 매달려 있는 끌고사리의 길쭉한 이파리를 따서는 그걸 발에 감싸 일종의 장화를 만들